

## 오히려 더욱 감사

화요일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위하여 도착했을 때 가게 문은 이미 열려 있었다. 지난밤 도둑님이 다녀가셨기 때문이다. 소리 소문 없이 앞 문 열쇠를 뒤틀어 뽑아내고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다. “아 차!”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 않아도 방범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게 생겼기 때문이다. 얼마나 영망을 만들어 놓았을까? 두근두근 생각하면서 문을 열고 가게 안을 들여다 본 순간 어제 문을 닫을 때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다. 카운터를 돌아 캐시 레지스터(cash register)를 가 보았다. 늘 잠금을 풀고 다녔기 때문이다. 기대했던 것 같이 도둑은 그 안에 있던 동전을 가지고 갔다. 그런데 이상 한 것은 25전과 10전 짜리만 가지고 간 것이다. 또한 동전이 더 모자랄 때 사용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하여 밑에 넣어둔 또 다른 동전 다발도 전부 가지고 갔다. 동전 손해는 보았지만 참으로 이상 한 것은 다른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몇 군데 문을 열어보고 뒤져보고는 자리를 떠났다. 없어진 것은 그 외에 에너지 드링크 몇 개 없어진 것뿐이었다. 아마도 목이 많이 말았던 모양이다. 한 참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가 저쪽 문을 보니 뒷문도 열려 있는 것이 아닌가? 그곳에 있던 두개의 문 열쇠들도 뽑아서 망가뜨린 것이다. 총 3개의 문이 망가지고, 동전이 없어졌으며, 에너지 드링크가 없어졌다. 처음에는 분한 마음이 들었지만 점차 안정을 찾았을 때에 “그래도 많이 손해가 나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급하게 열쇠 고치는 사람을 불러 앞으로 그런 일을 대비하기 위하여 든든한 열쇠로 교체했다.

그런데 그 날 오후, 당연히 분노에 휩싸였어야 나의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찾아왔다. 결국 고쳐야 했을 것을 고쳤기 때문이다. 열쇠가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 더 이상 복사가 되지 않을 정도로 사용한 문이고 열쇠였다. 그런데 도둑 때문에 3개를 몽땅 교체할 수 있었으니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한 후 조금 더 생각을 해 보니 오히려 감사한 것이 더 많았다.

먼저는 점장은 도둑이 다녀갔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가게를 영망으로 만들 수도 있었다. 또한 금요일 밤에 도둑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했다. 금요일에 다녀가셨다면 토요일과 주일까지 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더 많은 피해가 생겼을 것이다. 그리고 좋은 열쇠 수리공을 만났다. 그 사람은 정직했고 오히려 가격을 조종하여 정말 잘해 주었다. 그래서 닭고기를 공짜로 선물했다. 한 가지 더 있다. 3 열쇠 중 하나는 빌딩 주인이 고치겠다고 하니 2/3 값만 주면 되는 공사여서 고맙지 않은가? 마지막으로 도둑님이 왜 그런지 그리 묻지 않고 오히려 고맙다는 생각이 드니 감사했다. 결국 금전적으로도 손해를 보지 않았고, 건물 적으로도 잘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일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내 스스로가 고통스러웠을까? 하지만 그날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감사하게 되었다. 그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았고, 만일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의 일부였던 하루인 것이 확실했다.

그러나 나의 원래 모습은 원망과 불평이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상상 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하셨다. 금전적인 피해가 적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깨닫게 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라고 시인도 고백한다. 우리는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어렵고 힘든 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더욱 감사합니다!”